

## 哲學片感(五)

- 哲學을 왜 非難하는가 -

朴相鉉

哲學은 個性的이란 말은 哲學을 무슨 數學의 眞理와 갓티 一般化식히고 公式化식힐 수 업다는 말이다. 甲의 哲學은 언제나 甲의 哲學이고 乙의 哲學은 언제나 乙의 哲學이다. 甲의 哲學이 乙에게 어저한 感化와 刺戟을 줄 수는 잇겟지만 全的으로 同一한 哲學을 갖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. 換言하면 『칸트』의 哲學은 언제나 『칸트』의 哲學이고 『맑스』의 哲學은 언제나 『맑스』의 哲學인 것이다. 『칸트』와 『맑스』가 서로 그 個性이 相異한 것과 갓티 그들의 哲學이 各各 相異하다.

그러나 各 哲學者의 人生觀이 相異하다고 해서 何等の 相互關係가 업시 孤立的 關係에 잇다는 말과는 다르다.

個性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□□해야 相互□助하고 相互協力해야 一家庭을 形成하고 一社會를 形成해야 恒常 有機的 關聯을 가지는 것과 갓티 哲學도 各 哲學者에 卞라 그 獨特한 哲學的 價値가 相異하지만 서로서로 相互關係와 有機的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.

例컨데 新 칸트學派라 하면 그 學派 中에는 西南 獨逸學派에서 價値哲學을 主張하얏스며 『말브리히』學派에서는 論理主義 弛樂을 主張하얏다. 그러나 우리는 그 兩 學派를 新 칸트學派라고 稱名한다. 그것은 兩 派의 哲學의 形式이 相異하나 그 根本的 思想인 즉 『칸트』의 先驗的 批判主義 思想을 繼承하야 『칸트』의 批判主義思想 上에서 觀察 할 쎄 그 兩 學派는 그 根本思想에 잇서서 相互關係가 잇는 卞답이다.

如斯히 哲學은 個性的이면서도 相互關係를 結連 할 수 잇는데서 哲學의 特□이 存在하는 것이 아닐가? 難者의 要求와 갓치 萬人이 服從 할만한 一般的 因定不動의 結□을 哲學에서 要求함은 無理의 要求이요, 沒理解的 要求이다.

□性的이란 點에서는 □□도 哲學과 □□하다. 人生□□라든가 神秘한 自然을 □□한 小說家나 그 偉大한 作品은 各各 사람에 卞라 그 表現形式의 特色

과 獨特한 藝術的 價値가 相異 할 것이다. 『톨스퇴이』의 藝術作品에는 톨스퇴이의 獨特한 藝術的 價値가 存在한 것이고 『웍스피아』의 作品에는 『웍스피아』로서의 獨特한 藝術的 價値가 存在한 것이다.

如斯히 藝術에도 個性的 獨特한 價値가 잇슴을 알 수 잇다.

要컨대 哲學은 個性的 學問이다. □當難者는 哲學의 性質을 誤解함에서 그와 가튼 非難을 가지는 줄 안다.

獨逸의 哲學者 『피히테』는 自己의 人格如何에 따라 自由로 哲學을 □하라고 부르짖었다. 이 부르짖음도 哲學은 個性的임을 暗示하는 것이 아닐가? 難者는 哲學에서 一定 不變의 一般化한 結□을 要求하는 □望을 □□하고 哲學은 本來 個性的 學問이며 人類文化의 根本的 價値를 □□하는 方法論임을 알라.